



〈브라질 카를루스〉



〈포르투갈 호날두〉

독일은 지금 '스카웃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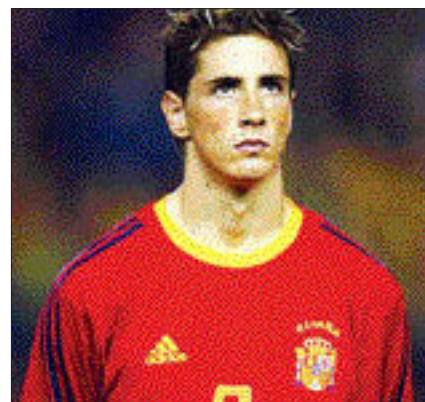
카를루스·카카·호날두·토레스 등 유럽 빅리그 구단들 영입경쟁 치열

2006 독일월드컵축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유럽 빅리그 명문 구단들이 이번 대회에서 맹활약한 대형 스타들의 영입을 놓고 뜨거운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급 선수 영입의 중심에는 역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부자군단' 첼시가 있다. 첼시는 대회가 개막하기 전에 이미 울버햄프턴을 이적시장의 최대어였던 안드리 셉첸코(우크라이나)와 미하엘 발라크(독일)와 계약을 마무리한 데 이어 최근 호베르투 카를루스(브라질)와 카를로스 테베스(아르헨티나)에게도 눈독을 들이고 있다. 반면 첼시는 디디에 드로그바(코트디부아르)와 히카르두 카르발류(포르투갈), 윌리엄 갈라스(프랑스), 로베르트 후트(독일) 등을 방출할 계획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지성의 소속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이번 월드컵 무대에서 선수 영입에 활발한 움직임 작업을 벌이고 있다. 맨유는 지난 시즌 주전 경쟁에서 밀린 퀴트 판 니스텔로이(네덜란드)가 팀을 떠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페르난도 토레스(스페인) 영입에 힘을 쏟고 있으며 미드필드 보강을 위해 후안 로만 리켈메(아르헨티나)와 프티(포르투갈)의 영입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스날은 이미 체코의 플레이메이커 토마스 로시츠키를 영입했고 디르크 카윗(네덜란드)과 디디에 조코라(코트디부아르) 영입을 검토하고 있다.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의 '초호화군단' 레알 마드리드도 지네딘 지단(프랑스)의 은퇴가 확실시 되고 있어 공백을 메울 선수 보강에 공을 들이고 있다. 레알 마드리드는 현재 회장 선거가 진행

중이어서 아직 특정 선수와 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지만 아르헨 로빈(네덜란드)과 카카(브라질), 크리스티아누 호날두(포르투갈) 등이 이적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 선수들도 월드컵 이후 이적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성, 이영표(토트넘)를 제외한 나머지 해외파들은 빅리그로 이동이 유력시되고 있다. 안정환(위스부르크)이 잉글랜드 및 스코틀랜드 프리미어리그 쪽에서 러브콜을

받았고 설기현(울버햄프턴)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로 승격된 레딩과 이적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을용도 올해 터키 슈퍼리그 트라브존 스포르와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잉글랜드 무대 진출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실세 경험에 있는 이천수(울산)는 해외진출 재도전을 선언하고 명문 구단을 물색 중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스페인 토레스〉



〈브라질 카카〉

8강전 관전 포인트

독일 중원을 장악하라 아르헨



〈발라크〉

세계 정상급 실력을 다뤘지만 지난 1990년 미국월드컵(독일 우승) 이후 우승 트로피를 받아본 적이 없다. 힘의 축구와 기교의 축구로 양분된 독일과 아르헨티나의 '라이벌 열전'의 정점은 지난 1986년 멕시코, 1990년 미국월드컵이었다. 멕시코 대회에서 아르헨티나는 독일(당시 서독)을 결승에서 3-2로 격파하면서 지난 1978년 자국에서 열린 월드컵 이후 8년만에 우승컵을 들어 안았다. 4년 뒤 독일은 1990년 미국대회 결승에서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1-0 신승을 거두면서 가슴에 세 번째 '별'을 새겼다. 이후 열린 3차례 월드컵에서 독일과 아르헨티나는 매번 우승후보로 손꼽혔지만 브라질(1994, 2002년 우승)의 독주와 프랑스(1998년 우승)에 밀려 짜릿한 우승의 기억에서 멀어지고 말았다. 독일은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 미로슬라프 클로제의 맹활약과 올리버 칸의 거미손 방어를 앞세워 우승을 노렸지만 '질대지존' 브라질에 눌러 준우승에 만족해야만 했다. 이 때문에 독일과 아르헨티나는 이번 8강전의 승자가 곧 '결승행'이라는 각오로 최상의 베스트 11을 꾸리겠다는 각오뿐이다. 독일과 아르헨티나는 이번 독일월드컵에서 비슷한 성적을 보였다. 독일은 조별리그를 합쳐 4연승을 거두는 동안 10골 2실점을 기록했고, 아르헨티나도 4경기 연속무패(3승1무)에 10골 2실점을 거뒀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세계 최고의 축구강국을 자처하고 있지만 월드컵 우승의 기억은 너무나도 멀다. 2006독일월드컵축구 개최국 독일과 남미 축구의 '양대산맥'을 이루는 아르헨티나. 조별리그를 끝낸 이번 월드컵에서 유럽과 남미축구의 첫 대결로 이뤄지는 독일-아르헨티나의 8강전(1일 0시)은 '미리 보는 결승'이라고 할 만큼 남다른 관심을 끌고 있다. 독일과 아르헨티나는 지난 1980년대 브라질을 제치고 치열한 우승다툼을 벌이면서



〈리켈메〉

그나마 독일은 개막전에서 코스타리카에 2골을 내준 뒤 3경기 연속 무실점을 거두고 있는 게 아르헨티나보다 나은 점이다. 하지만 아르헨티나는 세르비아-몬테네그로를 상대로 6-0 승리를 거둬 '폭발력'을 과시했다. 말 그대로 지금까지 성적만으로는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상대다. 영원한 '우승후보'에서 20년 만에 세계 정상에 우뚝 서고 싶어하는 아르헨티나와 4년 전 브라질에 무릎꿇고 우승컵을 놓친 독일. 과연 결승의 길목에서 승리의 여신은 누구에게 웃음을 지어줄지 기대가 모아진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이탈리아 관록이나 패기나 우크라이나



〈부폰〉

'셉첸코, 너의 능력을 보여줘' 종착역을 향해 달리고 있는 2006 독일월드컵 축구대회에서 최고의 '이변팀'으로 떠오른 우크라이나가 '빛장수비'의 대명사 이탈리아(7월 1일 오전 0시)를 상대로 4강 진출의 기적을 꿈꾼다. 객관적인 전력만 따진다면 '월드컵 새내기' 우크라이나가 월드컵 3회 우승과 함께 무려 16번째 월드컵 본선진출을 이룩한 이탈리아를 따라잡는다는 게 애초부터 불가능한 도전처럼 보인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H조 조별리그에서 스페인에 0-4 패배를 당한 뒤 사우디아라비

아를 상대로 4-0 승리를 거두면서 오뎅이처럼 발떡 일어섰고, 튀니지전에서 '독점기계' 안드리 셉첸코(첼시)가 스스로 페널티 킥을 얻어낸 뒤 결승골까지 성공시켜 기적처럼 16강에 올랐다. 말 그대로 '자신감'이 최고의 무기인 셈이다. 셉첸코는 유럽지역 예선 9경기에서 6골을 몰아치며 조국의 첫 월드컵 본선 진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터라 일찌감치 '독점왕' 후보로 손꼽히기도 했다. 하지만 셉첸코의 월드컵 데뷔전은 축구팬들에게 실망만 안겨줬다. '부족함' 스페인의 치밀한 '그물망' 수비에 막힌 셉첸코는 별다른 활약을 펼치지 못했고 팀 역시 0-4로 대패하면서 일찌감치 조별리그 탈락이 점쳐졌다. 더구나 셉첸코의 독점력을 받쳐줄 미드필더진의 부진으로 우크라이나는 '셉첸코의 원맨팀'이라는 속상한 비아냥까지 들어야 했다. 하지만 '약체' 사우디아라비아전은 셉첸코의 부활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했다. 셉첸코는 2-0으로 앞서던 후반 1분 헤딩 슈팅으로 자신의 '월드컵 1호골'을 터트린 뒤 후반 39분 막심 칼리니첸코의 골을 완벽하게 어시스트하면서 1골1도움의 맹활약을 펼쳤다. 셉첸코는 튀니지와 3차전에서 후반 25분 페널티지역에서 골키퍼와 상대 수비수를 동시에 유린하면서 페널티킥을 얻어낸 뒤 스스로 결승 페널티킥 골을 성공시켜 월드컵 첫 진출에 기여했던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셉첸코〉

16강 진출의 선물까지 안겨줬다. 셉첸코는 이탈리아 선수들의 대부분이 자신의 간짜가 굵은 세리아A에서 뛰는 선수들이란 만큼 장단점을 제대로 알고 있는 장점이 있다. 세리아A 최고의 거미손으로 정평이 난 잔루이지 부폰(유벤투스)과 맞대결 역시 이번 8강전 최고의 볼거리로 떠올랐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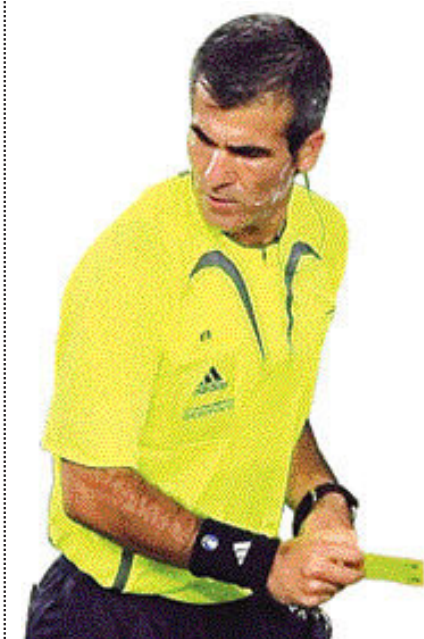
블래터 FIFA회장 "한국, 정말 아쉽게 탈락한 팀"

제프 블래터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이 "이번 2006 독일월드컵 축구대회에서 한국은 정말 아쉽게 탈락한 팀"이라고 평했다. 블래터 회장은 29일(이하 한국시간) 대회 인터넷 공식 홈페이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아시아팀들의 전멸에 대해 언급하며 "아시아는 적어도 한 팀은 16강에 진출할 수도 있었다. 예를 들어 한국은 정말 아쉽게 탈락한 팀이었다. 아시아 축구에 있어서 좋지 않은 일이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시아 팀들의 조기 탈락을 '사고(accident)'라고 표현했다. 이번 대회 논란이 일고 있는 심판 관점에 대해서는 "기준이 매경기 일관성있게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상대편 옷을 잡아당긴 것이 어떨 때는 그냥 넘어가다가 하면 또 반칙이 지적될 때도 있다. 또 백패클이 경로나 주의 없이 지나간 것도 있었고 폭력적인 행위가 제재를 받지 않은 적도 있다"고 관정의 문제를 사실상 상인했다. 그러나 그는 "심판들은 축구에 있어 필

수적인 존재들이다. 그런 심판들을 존중하고 지지를 보내는 의미로 비디오 판정을 반대하고 있다"면서 "비디오 판정을 하게 되면 심판들이 의무 수행에 있어 헤이해진다는 실현 결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월드컵이 끝나면 FIFA는 심판 문제 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블래터 회장은 이번 대회 전반에 대해 "조직 체계가 굉장히 잘 짜여있고 경기장은 만원을 이뤘다"고 말했다.

'한국-스위스전 오심' 엘리슨도, 8강 심판진



한국-스위스 조별리그 G조 3차전에서 오심과 판과판정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오라시오 엘리슨도(43·아르헨티나·사진) 주심이 2006독일월드컵축구 8강전부터 결승까지 책임질 심판진 12명에 포함됐다. 그러나 호주-크로아티아전에서 한 선수에게 옐로카드를 3장이나 준 그레엄 폴(잉글랜드) 주심과 옐로카드와 레드카드(남발로 제프 블래터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으로부터 '경고감'이라는 비판을 받은 네덜란드-포르투갈전 주심 발

렌틴 이바노프(러시아)씨는 보파리를 싸게 됐다. 프랑스 종합일간지 '르 피가로'는 29일 FIFA가 엘리슨도를 포함한 12명의 심판 명단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 명단에는 마시모 부사카(스위스)와 프랑크 드 블랙케르(벨기에), 루이스 메니다 칸탈레호(스페인), 마르쿠스 메르크(독일), 루보스 미첼(슬로베니아), 로베르트 로세티(이탈리아) 등 6명의 유럽 출신 심판이 포함돼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